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년 11월 21일(금) 조간
	담당자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12, jiseob.kim@kdi.re.kr)
	배포일시	2014년 11월 20일(목)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지섭 KDI 연구위원

본고는 11월 말 발간 예정인 2014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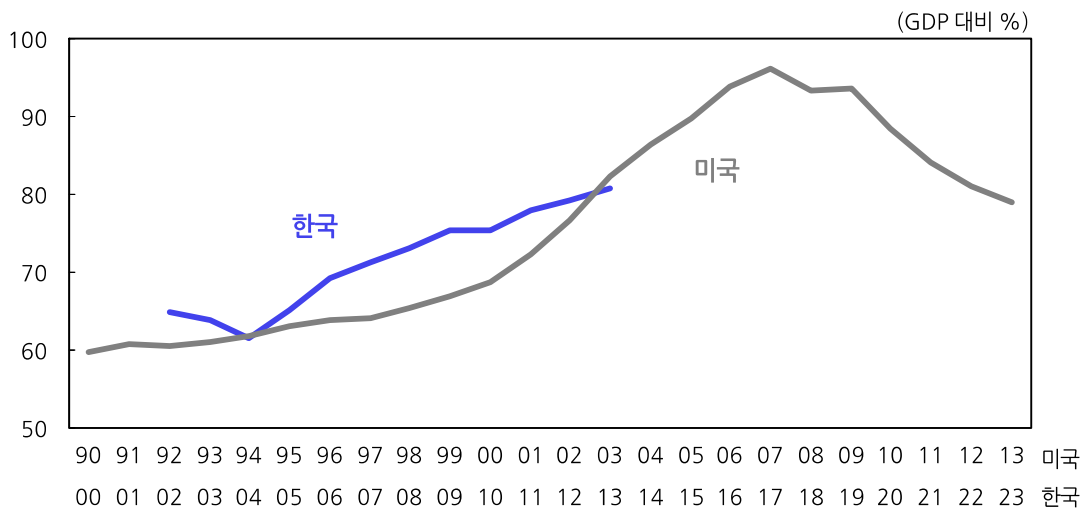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위원 김지섭

1. 문제의 제기

-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가계부채가 지난 8월 이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등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
 - 2011~13년의 지난 3년 동안 가계부채는 월평균 1.4조원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지난 8월 이후에는 월평균 5.2조원으로 증가세가 확대
- 한편, **2013년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미국과 비슷한 80% 내외까지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 거의 100%에 이르렀다가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부채조정을 겪은 바 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큰 조정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한국과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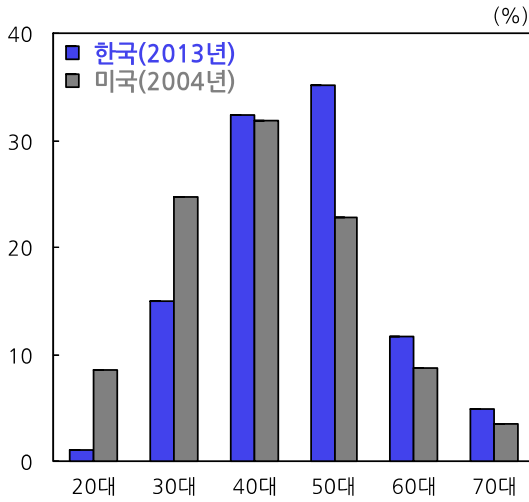
자료: OECD; 한국은행.

- 따라서 본고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침을 겪었을 뿐 아니라 관련 미시자료가 풍부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기준에 의해 집계된 부채 보유 가구에 대한 미시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동태적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본고에서는 2000~10년의 「노동패널」과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료 간 일관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반면, 1989년 이후 3년마다 집계되는 미국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에는 일관된 기준에 의한 가계부채 미시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가계부채 분포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가계부채 구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미국과 비교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보유 구성 및 그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전반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이하에서는 전체 가계부채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일부 분석 결과를 부록에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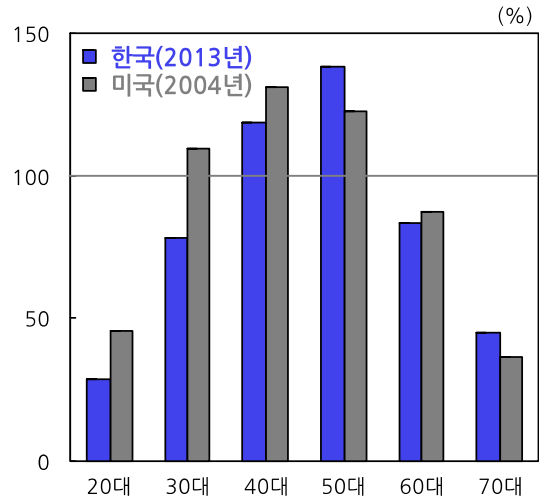
2. 한국과 미국의 비교: 정태적 측면

- 2013년 우리나라와 2004년 미국의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분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부채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50대의 부채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3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50대 가구의 부채비중이 40대보다 낮은 22%에 불과
 -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이한 인구구조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당 부채의 분포를 살펴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50대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50대 가구는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가구보다 40%가량 많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0% 내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50대는 인구비중도 높아, 50대 가구의 부채 절대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비율



전 가구 평균 대비 가구당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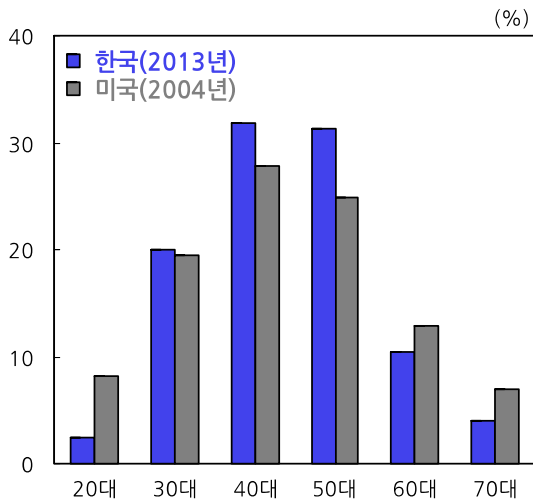
주: 미국 SCF 데이터에는 극단적으로 부유한 가구도 설문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가계부채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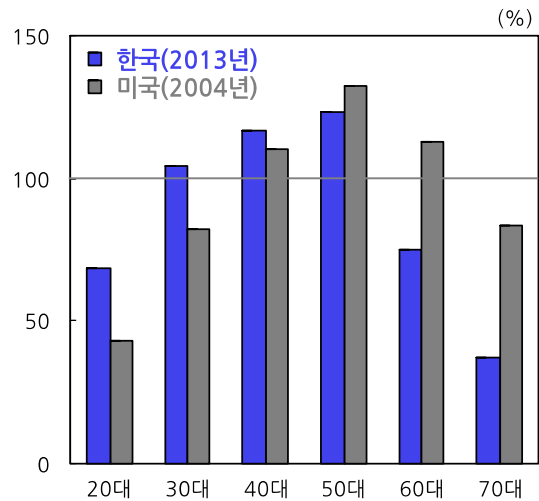
■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미국에 비해 은퇴시점 이후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부채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

● 우리나라 50대의 소득비중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50대의 인구비중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서 가구당 소득 비율은 오히려 미국보다 낮음.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소득 보유비율



전 가구 평균 대비 가구당 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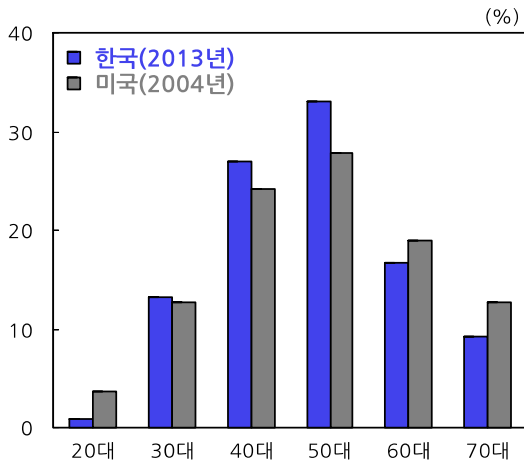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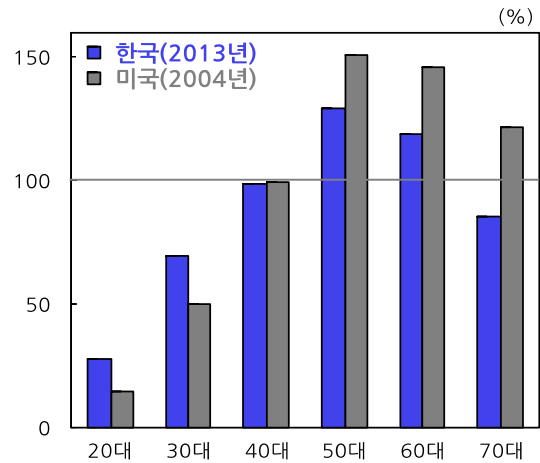
■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미국에 비해 보유자산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의 가구당 자산이 청년층에 비해 많기는 하나, 미국에 비해서는 고령층의 자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비율



전 가구 평균 대비 가구당 자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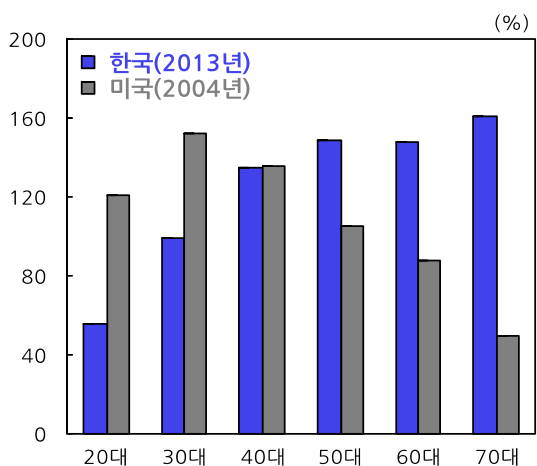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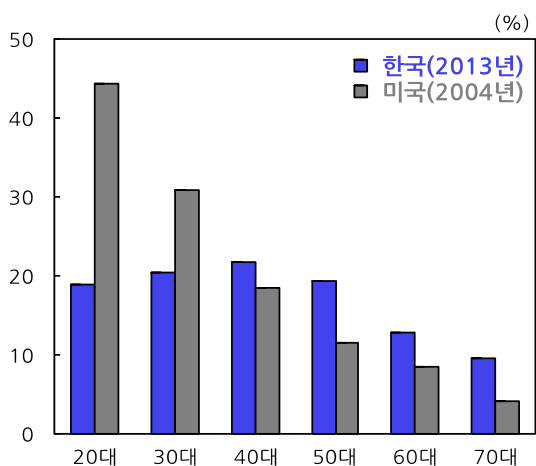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과 달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미국처럼 빠르게 하락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젊었을 때 차입한 부채를 생애에 걸쳐 상환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

연령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연령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3. 가계부채 분포의 동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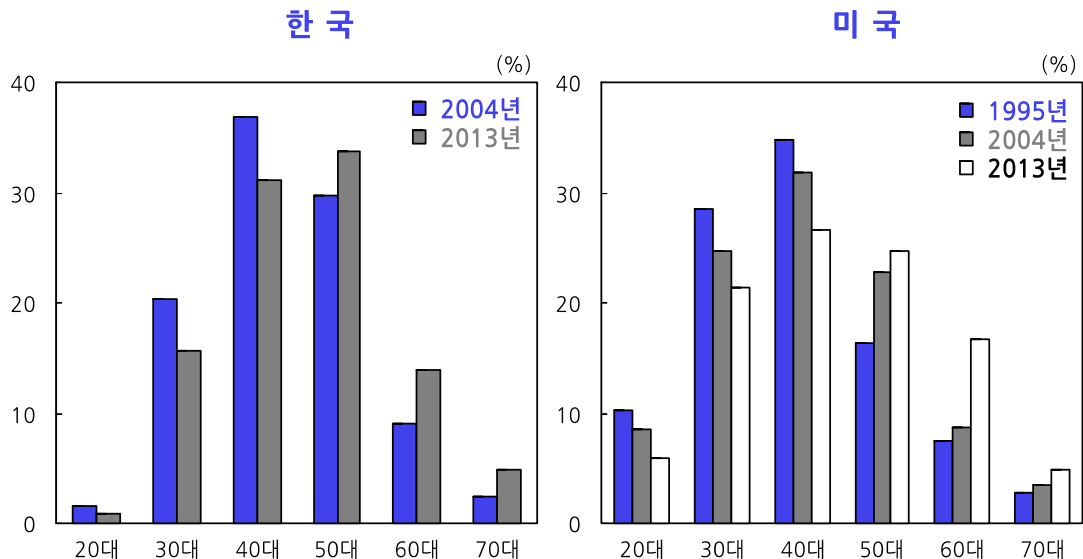
■ 현재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가계부채 분포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가능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장기적 함의를 도출함에 있어 매우 중요

● 현재 40~50대의 중장년층이 부채규모를 축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와 함께 소득이 급감할 경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환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가계부채 연령별 분포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고령가구의 부채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패턴이 나타남.

●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공히 40대 이하의 부채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부채비중은 증가

가계부채 보유비율 분포의 변화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동패널」;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RB.

■ 이와 같은 관찰은 특정 시점의 동세대(cohort)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즉,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40대였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입한 부채 중 상당 부분이 상환되지 않고 동세대가 50대가 된 2013년의 50대 부채비중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 가계부채 분포의 동세대 효과(cohort effect)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3세 단위의 가상패널(pseudo panel) 자료를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세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됨**(자세한 분석방법은 Box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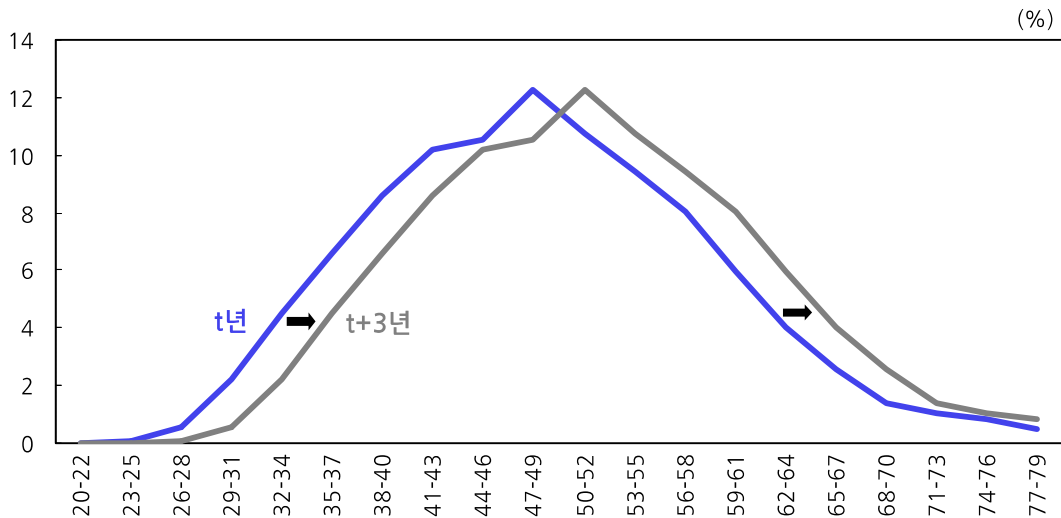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동세대 효과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분석에 활용된 우리나라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이와 같은 계량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현재 40~50대 가구주가 은퇴할 10~2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파란색 실선은 우리나라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연령별 평균 부채보유 비율을 나타냄.

● 그러나 3년이 경과하면, 이 분포는 관성(inertia)을 가지면서 회색 실선과 같이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분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가계부채 보유비율 분포의 변화 예시(동세대 효과)



Box: 동세대 효과(Cohort Effect)의 추정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계부채 분포의 동세대 효과를 추정

- 장기간 패널 형태의 한국 가계부채 미시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3년 단위의 설문결과로 연령별 가상패널(pseudo panel)을 구성

- t 시점에 가구주 연령이 a 인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비율을 $d_{a,t}$ 라 정의
- 여기서 t 는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이하 노동패널), 2013년(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의미
- 가구주 연령 a 는 20~22세, 23~25세, ..., 77~79세의 3살 단위로 그룹

- 특정 연령대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부채 비율을 통제한 후 동세대 효과를 계산

$$d_{a,t} = \beta_0 + \beta_1 I\{23 \leq a \leq 25\} + \dots + \beta_{19} I\{77 \leq a \leq 79\} + \gamma_1 d_{a-3,t-3} + \epsilon_{a,t}$$

- 여기서 $I\{x \leq a \leq y\}$ 는 가구주 연령(a)이 x 세 이상 y 세 이하이면 1의 값을 가지고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
- 추정된 γ_1 의 값은 동세대 효과의 지속성(persistence)으로 해석 가능
- 연령별 가계부채가 생의 주기효과(life-cycle effect)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면, γ_1 의 값은 0으로 추정되어야 함.

■ 분석 결과, 한미 양국 모두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비율의 분포에서 동세대 효과가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γ_1 이 0.61(표준오차 0.08), 미국에서는 0.65(표준오차 0.08)로 추정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6세 단위의 분석을 한 결과 γ_1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0.79(표준오차 0.11)로 나타남.

4. 요약 및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40~50대 가구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향후 소득이 급감하는 고령층이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자산이 많은 중장년층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되고 있음.

- 그러나 동세대 효과(cohort effect)를 감안한 동태적 시각에서 볼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의 자료뿐 아니라 장기간 일관된 통계가 존재하는 미국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동세대 효과는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단기·일시상환 방식의 계약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은퇴연령이 가까워지면서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전체 발행 주택담보대출 중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비율이 18%, 만기 일시상환 계약방식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2004년 미국의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계약기간 30년 이상 비율이 64%에 이르고, 일시상환 계약방식은 0.08%에 불과

■ 따라서 단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주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흐름도 감안하는 방향으로 DTI 산정방식을 강화할 필요

- BIS 위험가중치 산정, 세제유인 및 금융감독을 통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억제하고 장기·분할상환 방식을 장려하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

- 이와 함께 DTI 규제 적용 시, 일선 금융기관들이 가계의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감안하도록 유도하여 현재의 중장년층이 은퇴하는 시점에 초래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위험을 분산할 필요

- 한편,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이 DTI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 부분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DTI 산정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자산가격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예방하는 한편 자산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축소시킬 필요**

- 현재 가계부채가 집중되어 있는 중장년층은 자산비중도 높은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주택건설 관련 규제들을 합리화함으로써 가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
 -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에는 상대적으로 거품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아울러 주택연금 및 역모기지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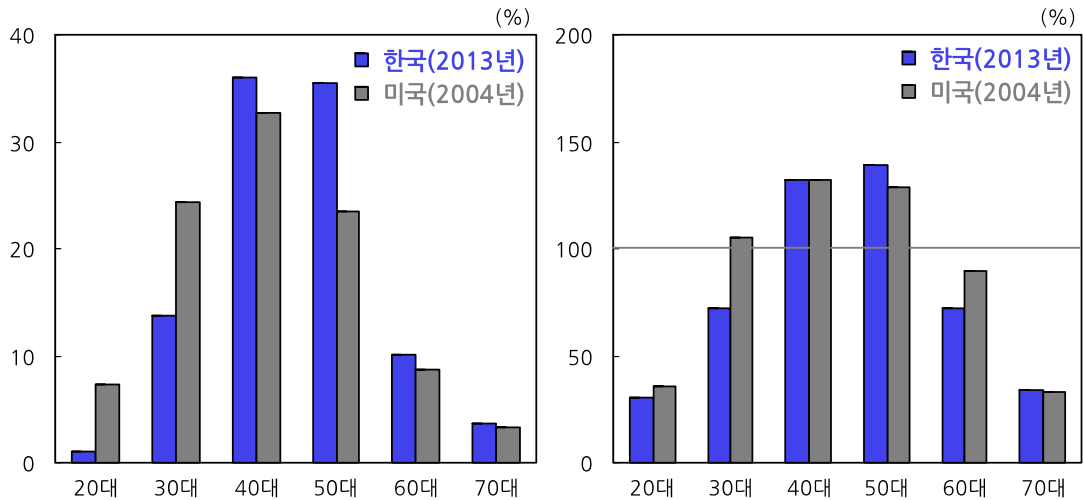
■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령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는 성장 및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은퇴연령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
 - 현재는 노동시장의 연공서열형 임금체제로 인하여 고령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과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부 록 부동산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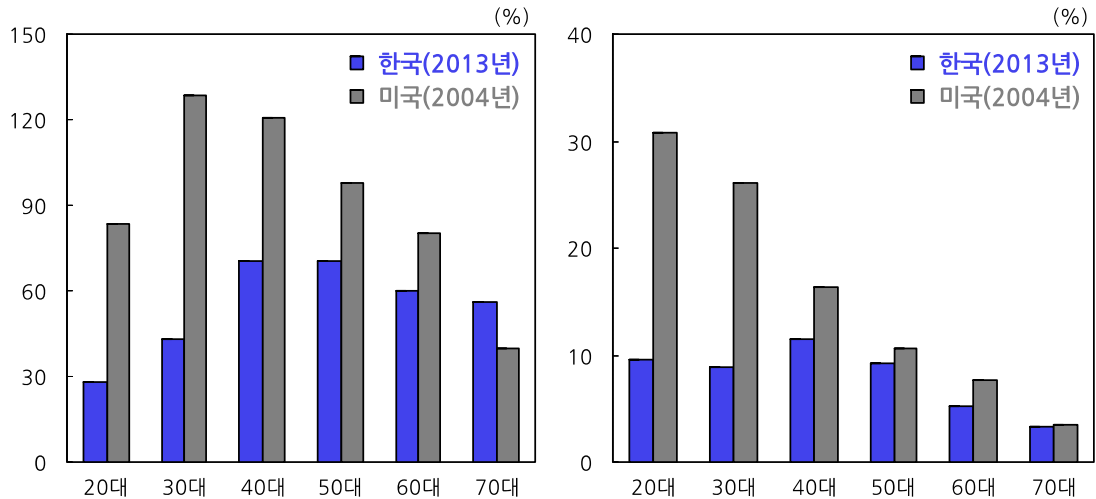
-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나, 소득 및 자산 대비 비율은 미국을 하회하는 수준¹⁾

가구주 연령대별 부동산 담보대출 보유비율 전 가구 평균 대비 가구당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연령별 소득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연령별 자산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자료: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주주택 담보대출과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담보대출의 합으로 정의함. 반면,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Mortgage, Land Contract), 투자용 부동산 담보대출,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합으로 정의함.